

남원시, 전국 첫 수해지역 지적 재조사

무상으로 토지 경계 복원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남원시는 호우 피해로 수몰된 마을 중 지적재조사지구에 대해 무상으로 토지 경계를 복원해 주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한 지역은 사업 이후 누구나 동일한 측량성과를 제시할 수 있고 측량 성과물(경계점 좌표, 사진, 지상구조물과의 거리 등)을 영구 보존하고 있어 수해민의 토지 경계 확인 및 남원시에 보유 중인 GPS측량 장비를 활용해 정확한 경계복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 지역은 수해지역 중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였거나,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2013년 추진한 노암3동과 송동 세전(동양·중상·신산 마을), 지난해 추진한 귀석·상귀 마을, 올해 추진 중인 상귀마을(원마을) 등이다.

신청 절차는 수해를 입은 피해사실확인서를 첨부해 면·동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에게 오는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남원시 관계자들이 수해지역에서 토지 경계 복원을 위한 지적재조사 작업을 하고 있다. <남원시 제공>

경계 확인이 가능한 지역은 경계점이 표시돼있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제공하고, 건물·담장·논둑 등이 훼손돼 경계확인이 어려운 경우는 남원시 공무원이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다.

수해지역 중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적측량수수료를 50% 감면, 측량한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순창읍 지중화 사업 53억원 투입 오늘 첫삽

읍사무소~경찰서까지 2km 구간

순창군이 26일부터 '순창읍 시가지 지중화 사업'에 착수한다.

지중화 사업은 공중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전선을 제거함으로써 주변 환경을 개선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 구간은 순창읍사무소 앞 은행교부터 순창경찰서까지 양방향 2km이다. 전선과 통신선을 지하에 매설 후 보도블럭과 도로포장 복구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내년 6월까지 진행된다.

사업비는 순창군 31억3000만원, 한전 15억4000만원, 6개 통신사 7억원 등 총 53억7000만원이 투입된다.

앞서 지난 3월 순창군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한전을 비롯해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사 6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달 초에도 관련 기관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회의를 하는 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순창군은 순창읍사무소 앞 은행교에서 순창경찰서까지 양방향 2km 구간에 대해 지중화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사업 구간 내 학교 통행로와 함께 상권이 밀집돼 있어 향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과 먼지 등 민원을 최소화하고자 공사 협조문을 각 영업장에 발송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에도 38억원을 들여 경전교에서 교육청사거리 양방향 1.2km 구간의 중앙로 지중화 사업을 진행했다. 또 가로등과 화분 설치, 도로 확장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도로 환경을 개선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정읍경찰,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만들기 캠페인

정읍경찰은 지난 24일 정읍동초등학교사거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사진>

캠페인은 등교시간에 맞춰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보행 지도를 실시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의 무 위반, 주·정차 위반 등 교통사고 사고요인 단속을 병행했다.

이철수 정읍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속에 나설 것"이라며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교통 안전교육을 실시해 안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수재민에게 용기를"... 온정 손길 잇따라

삐뽀삐뽀 손편지...정성 담긴 구호물품도

"곡성군민분들! 수해로 많이 힘 드시겠지만 용기 내시고 어려움 잘 극복하시길 응원 드립니다."

이틀새 500mm가 넘는 폭우로 큰 수해를 입은 곡성에 특별한 선물이 전달돼 수재민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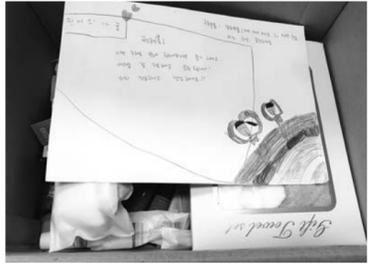
25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수해 구호 기부 물품으로 10kg들이 쌀 54포대가 도착했다. 얼핏 보면 평범해 보이는 물품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특별하다. 대부분의 구호 물품과는 다르게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어른과 함께 심시일반 마음을 모은 것이다.

기부품을 보내온 곳은 서울에 있는 은행나무어린이도서관이다.

함께 보내온 편지에는 11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 43명의 어른들이 쌀 보내기 모금을 통해 한푼 두푼 모은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울러 수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한 어린이는 생필품 세트들 별도로 보내기도 했다. 상자에는 치약과 칫솔, 비누와 수건 등과 함께 삐뽀삐뽀하지만 정성을 담은 손편지(사진)가 들어



있었다. 편지 하단에는 구호물품을 보낸 이의 따뜻한 마음처럼 알록달록한 무지개 위에서 두 명의 사람이 하트를 보내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곡성군 관계자는 "정성이 담긴 편지와 기부물품에 수해를 입은 주민은 물론 수해 복구에 나선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큰 힘이 얻었다"며 "응원해 주신 만큼 더욱 힘을 내서 수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나주·완도·서울 새마을회, 나주에 구호물품 기탁

나주·완도·서울 새마을회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나주지역 이재민들을 위해 구호물품을 전달했다.<사진>

나주시새마을회는 구호물품 100만원 상당을, 완도군새마을회는 이불 50개를, 서울시새마을회는 휴지(50만원 상당)를 각각 기탁했다. 특히 완도새마을회는 나주시청을 찾아 기탁식을 갖고 이재민과 수해 복구 참여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홍안기 완도새마을회장은 "호우 피해로 임시 시설에 생활 중인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담양농협·담양중앙상인회, 수해 주민 후원

담양지역 주민들의 수해 복구 지원은 물론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는 온정도 잇따르고 있다.

담양농협 김법진 조합장 외 임직원 일동은 수해 복구 지원과 함께 성금 302만원을 모아 전달했다.<사진>

또 담양중앙상인회(회장 김현진)도 침수 주택 읍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을 기탁했다.

담양읍이 고향인 익명의 기부자는 성금 100만원을, 담양읍 복지기동대장을 맡고 있는 김준식 좋은 주택만들기 대표가 성금 50만원을, 청전할머니경로당이 20만원의 성금을 담양읍사무소에 전달했다.

익명의 한 독자가 화장지 100박스를 읍사무소에 놓고 갔고, 동산치과에서는 칫솔 350개, 나라마트에서는 라면 35박스, 담양읍 상인협회는 생수



20박스 전달해 수재민을 위로했다. 조아의로타리봉사단과 맷잎홍팍죽에서는 이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담양=노영한 기자 nyc@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